

“나의 엠마오”

누가복음 24:13-21, 28-31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삼일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약 25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로 갑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실망이 컸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의 옆에 다가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과 같은 여행객 또는 나그네로 인식했던 것이죠.

우연히 마주친 것만 같은 이 낯선 사람과 두 제자간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신다.

예수님은 엠마오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그리고 도착해서도.. 이 두 제자와 줄곧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하소연 하듯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귀담아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것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옆에 있는 예수님을 몰라본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마치 하소연 하듯이 내뱉는 모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됩니다. 기도는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섬기며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성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2.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어떤 분들은 오늘 두 제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눅 24:15)

위의 성경구절에서 밑줄 친 부분을 자세히 보면, 주어는 “예수께서” 이고, 동사는 “동행하셨다” 입니다. 즉, 주어와 동사를 합하면, “예수께서 동행하셨다” 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두 제자에게 가까이 오셨고, 엠마오까지 가는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히 발생한 것만 같은 이들의 만남이, 실상은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결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우연히 발생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일에 대해 크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슬픈 일에 크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분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가까이 오셔서 기꺼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3.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어느덧, 두 제자와 예수님 일행은 엠마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강권하여’ 초대하게 되고, 예수님은 이들의 집에 묵으시게 됩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의 집에서 있었던 식사시간의 모습을 보면 어딘가 자연스럽지 못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눅 24:30)

혹시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셨습니까?

식사시간이 시작되자, 예수님께서서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떡을 들고 기도를 하신 뒤에 그 음식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씩 나누어 주고 계신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행동일까요?

그 집에 초대된 집 주인이 하는 행동이죠. 손님으로 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 음식을 들고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은 왠지 어색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실 때 더이상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미 주인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초대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끌어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의미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자리를 양보하십시오. 꼬마 아이와 아빠가 손을 맞잡고 산을 오를 때, 아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아빠를 잡고 있던 손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든든하게 붙들고 있던 그 힘있는 손 때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붙드셔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틀리고, 하나님은 맞다!' 는 고백이 참 진리이며, 이것이 우리가 매일마다 인정해야 하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되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행동을 양보하고 믿음으로 맡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그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4. 제자들은 변화를 경험한다.

제자들에게는 두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번째 변화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그 슬픔과 절망감이 엠마오에 도착해서는 새로운 소망을 찾고자 노력하는 희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엠마오에 도착해서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집에 머물기를 '강권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번째 변화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에 더 이상 할 일을 찾지 못했던 이들이 이제 고향집인 엠마오에 왔는데, 도착한 그날 밤 다시 집을 꾸려 사역의 현장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갔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온 엠마오에서 도착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눅 24:33)

'곧' 일어나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였을까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눅 24:35)

떡을 떼심, 즉 자신들에게 주인의 역할로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분이 우리의 주인으로 임재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모든 사역을 접고 엠마오로 떠났던 이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변화들을 갖게 한 것일까요?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눅 24:27)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눅 24:32)

말씀이 임하면 뜨거워집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그들의 삶을 180 도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사람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엠마오에서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엠마오는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엠마오는 과연 어디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장소, 또 말씀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며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는 장소, 여러분의 엠마오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성광교회가 성도님들의 '영적 엠마오'와 같은 장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도 경험하는 영적 엠마오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우리가 만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고 한다면, 나중에 엠마오까지 동행했던 그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 말씀이 임하면 뜨거워진다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까? 말씀을 보는 것, 듣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뜨거웠던 기억을 나눠 봅시다.
3.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